



손호영, 10월29·30일 솔로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
가수 손호영(사진)이 10월29·30일 이틀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
성카드홀에서 솔로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벌인다. 손호영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10년간의 활동을 총망라할 예정이다. 그간 보여준 솔로
활동 무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 색다른 무대를 준비 중이다.

tvN 드라마 ‘굿와이프’ 끝난

유지태 & 전도연



사진제공 | tvN

TV와는 거리가 났던 영화배우 전도연(43)과 유지태(40)
가 안방 시청자들에게 성큼 다가왔다. 그리고는 3개월
간 머물렀다 훌쩍 떠났다. 최근 종영한 케이블채널 tvN
‘굿와이프’를 통해 오랜만에 시청자와 만난 두 사람은
영화와 달리 춘각을 다루는 드라마 촬영현장이 낯설
고, 때론 서툴기도 했다. 그러나 뛰어난 연기력으로 시
청자의 눈을 즐겁게 했다. 이들의 연기를 TV에서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벌써 기다려지는 이유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유지태 “이제, 연기가 유연해졌다”

사소한 연기에 목숨 걸던 나...이젠 유연하게 대처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니 나만 생각할 수 없겠더라

유지태는 2014년 ‘힐러’ 이후 2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하며
바빠 돌아가는 현장의 힘들게 다시 느꼈다. 드라마는 ‘공동
작업’이라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다. “한 장면에 목숨 걸지 않
았다”는 유지태.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던 그의 성취
감은 기대 이상으로 컸다.

사실 TV에서 유지태를 다시 만나기까지 1년5개월이 걸렸
지만, 영화배우 이미지가 강하다보니 그의 TV 공백은 더 길게
느껴졌다. 더군다나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아 이제는 친근
함까지 든다. 그는 “드라마 신인배우”라며 미소만 짓는다.

유지태는 ‘굿와이프’에서 성매매 사건에 휘말려 한순간에
추락하는 전도유망했던 검사 이태준을 연기했다. 자신의 잘
못에도 아내 김혜경(전도연)에 대해서는 애정을 곳곳하게 드
러내 ‘쓰랑꾼(쓰레기+사랑꾼)’ 애칭을 얻었다. “많은 분들의
호감에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연기가 재밌어서 하
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바라며 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연기에만 집중하고자 했던 유지태, “28개월의 아
들과 술이 눈에 어른거렸지만” 현장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
었다. 완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기하는 영화와 달리 활
영하며 만들어가는 드라마 현장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 완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기하는 영화와 달리, 촬영하며 만들어가는 드라마 현장은 유지태에겐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드라마는 감정과 대사가 다소 어긋나도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

사진제공 | 나투엑터스



전도연 “매일 도망치고 싶었어요”

5개월간 촬영... 좋다는 약 다 챙겨먹으며 버텼죠
동료와 애뜻한 추억...드라마도 중독성 있네요

전도연은 ‘프라하의 연인’ 이후 11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
하면서 “쓰러지는 줄” 알았다고 했다. 4월부터 5개월간 촬영
하며 힘에 부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좋다는 약은 다 챙겨먹으며 버텼다”는 그는 “적음이 됐는지,
죽으면 법은 없더라”며 웃었다.

‘굿와이프’에서 전도연은 검사인 남편이 성매매 의혹으로
추락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로 나선 김혜경을 연
기했다. 처음으로 맡은 변호사 역할은 대사양도 버거웠지만
법정 장면을 찍을 때마다 1kg씩 체중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
을 정도로 체력 소모가 컸다.

“매일 도망치고 싶었다. 무엇보다 나의 아주 큰 단점이 드
러나더라. 감정연기는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전문용어가
많아 힘을 쥐서 말을 하다보니 입이 뻘뻘해지더라. 하하! 연
필 물고 연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쉬움이 남지만 시간에 쫓기며 진행되는 게 대부분의 드
라마 현장이다. “대본을 쪽지 보듯이” 보며 대사를 외울지연
정 자신의 욕심으로 촬영이 지연이 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

전도연은 극 중반 짧게 자른 앞머리로 화제를 모았다. “욕
많이 먹은 거 안다”고 웃으며 “절대 어려 보이려고 한 것 아

니다”고 손을 내젓는다. “이전 헤어스타일은 굉장히 손이 많
이 가서 한 장면 찍을 때마다 손질해야했다. 가발을 쓴 것처
럼 머리 위에 씌워놓은 느낌이었다. 연기에 집중해야하는데
목에 힘이 들어가 신경이 쓰이기도 했다.”

결국 편안함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다. 자신의 피
부 상태가 TV 화면에 그대로 드러나더라도 “제가 편해야 보
는 사람도 편안하다고 생각한다”는 주의다.

자신에 대한 신뢰는 아내로서도 마찬가지다. “남편을 너
무 사랑해서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농담하는 결혼 10년차 전
도연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틀을 깨지 않는다”고 말했
다. 딸 얘기에 “이마랑 코가 저를 닮았는데, 예쁜 것 같다”고
에둘러 ‘미모 자랑’을 하기도 했다.

전도연은 누구나 인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다. 이런
평가가 부담스럽지만 일부러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주변의 기대는 끝이 없다. 불가능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고 말했
다. 이러한 마음으로 ‘굿와이프’를 만났다. 그간의 소회를 밝
히며 두 손으로 흐르는 눈물을 여러 번 닦았다. 고생을 견뎌
낸 자신이 “기특”하고 “대견”하기도 했지만, 많은 연기자, 스
태프들과 동고동락하며 쌓은 추억이 애뜻했다.

“저 우아하게 영화만 할 거라고 말하고 싶은데, 드라마에
중독성이 있더라. 하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 절대
로 드라마 안할 거예요’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 체력이 달리고 법률용어가 어려워 애를 먹었다는 전도연은 그야말로 전쟁 같은 촬영을 이겨냈다. 그러나 “드라마는 은근히 중독성이 있더라”며 언제나 다시 안방으로 돌아올 것을 시사했다.

사진제공 | 메니지먼트 숲

연예뉴스 스테이션

클래지콰이 호란, 결혼 3년만에 이혼

혼성 일렉트로니카그룹 클래지콰이 호란(최수진·
37)이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 30일 클래지콰이
소속사 플렉서스뮤직에 따르면 호란은 7월 전 남
편 A씨와 합의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어떤 민·
형사상 분쟁이나 갈등 없이 이혼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호란은 30일 SNS를 통해 “서로의 행
복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될까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플렉서
스뮤직 측은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
한 이후 현재까지도 서로의 생활과 활동을 누구보
다 가장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지내고 있다”고 밝
혔다.

‘밀정’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한국영화 대표

김지운 감독의 ‘밀정’이 내년 초 열리는 제89회 미
국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영화상 부문 한국영화
대표로 선정됐다. 영화진흥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밀정’은 작품의 미학적 성취도
뿐 아니라 감독 및 배우의 인지도, 해외 배급 및 마
케팅 능력 부분에서 두루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밀정’은 1920년대를 배경
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조선 경성으로 폭탄을 들여
오려는 의열단과 그들을 회유하려는 조선인 출신
일본경찰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송강호와 공유
가 출연했다.

■ 빅마우스

● “발연기. 쉬움 줄 알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연기
자 주상욱) 30일 열린 JTBC 새 금토드라마 ‘판타스
틱’ 제작발표회에서, 극중 맡은 ‘연기 못하는 톱스
타’를 연기하는 소감을 말하며.

아무리 칭찬의 뜻이라지만, ‘음원강패’는 좀...



김원겸의 토크타임

‘폭력 따위를 휘두르며, 남에게 못
된 짓을 일삼는 불량배’, 두산동아 새
국어사전에 오른 ‘강패’의 의미 풀이
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강패’를 입
력하면 관련된 어휘로 ‘어깨’ ‘악당’
‘폭력배’ ‘무뢰한’ ‘건달’ ‘싸움패’ ‘불
량배’ 등 대부분 부정적인 무리를 일
컸는 단어들이 소개된다.

이 ‘강패’가 요즘 가요계에서는 유
행이다. ‘음원강패’ ‘음색강패’ 등의 수

식어가 박효신부터 크래쉬 자이언티
심센터 어반자카파 태연 등 발라드 힙
합 인디밴드 등 장르와 부류를 막론하
고 실력이 출중한 아티스트에게 붙는
다. 문제는 ‘강패’라는 표현이 긍정적
인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다. 음원차트
에서 성적이 좋거나, 음색이 매력적인
경우 ‘강패’를 집미사처럼 붙여 칭송
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힘이
강하다’는 의미에서 ‘강패’라는 표현을
가져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

과연 ‘강하다’는 상징으로 ‘강패’를
가져오는 것이 적절한 비유인가. 이는

몇 가지 위험성이 따른다. 첫째, 강한
것이 미덕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다.
음원차트를 지나칠 정도로 많이 점령
하거나, 순위를 마구 바뀌놓을 만한
영향력을 보이는 등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경우 칭찬의 의미로 ‘강패’를
사용하고 있는데, ‘못된 짓을 일삼는’
강패를 음원차트에서의 선전(善戰)에
비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둘
째, 폭력이 ‘강함’의 상징이 될 수 있
는가. 폭력 혹은 불법적인 일을 저지
르는 무리를 일컫는 단어가 우수한
성적이나 실력의 표상처럼 여겨지는

것은 마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
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 셋째,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다.
‘음색강패’는 형용사가 아닌 명사(음
색)가 명사(강패)를 수식해 의미가 모
호하다.

사실 이처럼 부적절한 언어 사용은
비단 ‘음원강패’만은 아니다. ‘결정장
애’(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성향을 일
컸는 속어)처럼 장어를 비하하는 경
우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핵폭쟁’
(매우 많이 재미있음)과 같은 말도 아
마 ‘핵폭탄급 골같은 재미’라는 의미

일 텐데, 핵폭탄과 같은 무시무시한
무기를 재미에 결합시키는 언어유희
는 지나치게 창의적이라고 해야 할
까.

물론, 언어는 사회를 반영한다. 사
회를 살아가는 실제 사람들의 정서와
습관을 고려해 언어가 생겨나기도 한
다. 일례로, ‘셀피’(selfie)는 2013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올해의 단어’에
선정되는 동시에 옥스퍼드 사전에 정
식으로 등록되었다. 마찬가지로 ‘걸
크러시’(girl crush)처럼 ‘소녀’와 ‘반
하다’를 결합한 신조어도 세태를 반
영해 두루두루 쓰인다. 그렇다고 강
패까지 친근하게, 미화시켜 쓸 일은
아닌 것 같다.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gyummy@donga.com

음악 랭킹
8월 22일~8월 28일, 자료:멜론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이소열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한동근
2	휘파람	BLACKPINK
3	If You	에일리
4	목요일 밤(Ft. 빈지노)	어반자카파
5	puzzle	씨잼, 비와이
6	너 그리고 나	여자친구
7	Why So Lonely	원더걸스
8	여름밤에 우린	스탠딩 에그
9	Day Day (Ft. 박재범)	비와이
10	넌 사랑하지 않아	어반자카파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